

외교부

# 대만 관련 미일한 공동성명 강력 반대

외교부 대변인 곽가곤은 9월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일한이 최근 대만 및 해양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불가불한 데 대해 이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비방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곽가곤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

가분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만해협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은 '대만독립' 분열행위와 외부 세력의 방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명확

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그 어떤 형태로든 '대만독립' 분열활동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대만독립'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곽가곤은 "남해 정세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중국은 시종 명도

주권과 해양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국과 대화·협상을 통해 차이점을 적절히 처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긴장 고조 및 대립 선동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 중국, WTO 서 새로운 대우 추구 않기로

상무부: 발전도상대국 책임 보여줘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대표이며 부부장인 리성강은 9월 24일 상무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의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및 차별적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은 중국이 실제 행동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과 대국의 책임을 더욱 드러낸 것이라고 표시

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9월 23일, 글로벌 발전 창고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은 책임있는 발전도상대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의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및 차별적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 신화넷

한국 대통령:

## 조선반도 적대·대결 시대 종식할 것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9월 23일 제 80차 유엔총회 일반성 변론 연설에서 "조선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종식시키겠다."며 남북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연설에서 "무너진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조선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의사가 없음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칙 아래 우선 남북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조선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화넷

## 일본 쌀값, 다시 사상 최고가 접근



5월 21일, 일본 도쿄의 한 마트 쌀 진열대에 공급 불안정으로 구매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 신화넷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시장에서 5키로그램 포장 쌀 한포대의 평균 가격이 4,275엔(인민페로 약 205.5원)으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다고 일본 매체가 9월 22일 보도했다.

농림수산성이 전국 1,000여개 점포의 쌀값을 조사한 결과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주 동안 5키로그램 포장 쌀 평균 가격은 4,275엔으로 전주보다 120엔(인민페로 약 5.8원) 올랐고 4,000엔(인민페로 약 192원) 이상인 높은 수준을 2주째 유지하고 있다.

올해 5월, 일본 5키로그램 포장 쌀 평균 소매가격은 일시적으로 4,285엔(인민페로 약 206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일본 매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쌀값 오름세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가격이 비교적 비싼 신미(新米)가 출시되면서 전체 가격을 끌어올린 데서 비롯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 평범한 정부 비축미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4년 여름 이후 극심한 고온으로 인한 쌀 수확량 감소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쌀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기상 당국이 일본 동부 태평양 남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보를 내려 국민들이 쌀을 사재기하면서 일본에서 한때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미가 출시되면서 '쌀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쌀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신화넷

## 중한 우의를 느껴본 답사

[기자수기]



2025 중한 공상지도자 경제회의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 인민넷

9월의 한국은 가을비가 내리기도 하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맑기도 한다. 중국 외교부 기자단 일행 9명은 한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바다 건너의 이 땅을 밟았다. 그들은 서울과 경주 두 도시를 오가며 진행한 교류 방문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 기억 속에서 한중 수교의 초심을 되돌아보고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통해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 항일 역사 기억

가을비 내리는 서울 남산 기슭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안개 속에 묻혀 더욱 엄숙한 기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념관에 전시된 안중근의사가 중국어로 쓴 옥중 친필은 사람들의 마음을 국운이 풍전등화 같았던 시대로 이끌었다.

유명한 이 항일 의사는 오래동안 중국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다. 1909년 10월 26일, 그는 할빈역에서 당시 일본 추밀원(樞密院) 의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는 조선반도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의거였을 뿐만 아니라 중한 공동 항일의 중요한 기억이 되었다.

"안중근의사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작 100여년이 지났을 뿐인데 아시아는 전쟁의 불바다에서 번영과 평화의 세상으로 변모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기획자 이주하는 방문길에서 기자단에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조선반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역사적 시

점에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힘겹게 맞이한 평화를 지키지 않으면 역사의 어둠이 다시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지난 세기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침략에 맞서 중한 두 나라 애국지사들은 같은 원한을 품고 서로 도왔다. 중국내에 자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안중근의사기념관, 윤봉길생애전시관, 한국내 진린장군사당은 모두 고난 속에서 맺어진 두 나라 우정의 증거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 유적지 보호에 매우 중시를 기울이고 있는바 상해, 중경, 항주, 남경, 가흥, 진강, 장사, 류주 등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는 모두 잘 보수되어있다. 우리는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 교류 기간 한국 외교부 동북아중아국(中亞局) 심의관 남진은 기자단에 "한국 임시정부 소재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호는 역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우호적인 정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 리익이 맞물린 협력의 공감대

2024년, 중한 양국간 무역액은 3,280억 8,000만달러로 5.6% 증가했으며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 최대 교역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한국도 중국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양국 경제 교류의 긴밀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방문 기간 정부 관료나 기업 대표를 만나든 학계 인사나 일반 시민과 대화를 나누든 '교류 협력 확대'와 '한중 관

계 개선'은 항상 꾸준히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 이재웅은 기자단과의 대담에서 "한중은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뿔뿔아 뿔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발전 개선의 새 기회를 맞이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리적·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장점을 살려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명예소장 이희옥은 "한중은 선의후난(先易后难) 원칙에 따라 청년 교류, 산업 협력 등 분야에서 우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미디어의 객관적 보도와 학계의 심화된 연구를 통해 양국간 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삼성혁신박물관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전세계에 40개의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중이다. 중국내 연구개발 센터는 현지 산업생태계와 긴밀히 결합하여 모바일통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년간 중국은 빅데이터, 량자기술, 복두항법,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바 중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방곤, 기자단 단장 겸 중국 외교부 뉴스사(新闻司) 참사 도경장 등 중국측 인사들은 중한 수교 33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두 나라 관계가 짧은 시간내에 거대한 발전

/ 신화넷

图说 我们的价值观

#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